

“단기 성과보다 미래 기반 쌓는 데 집중”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총학 공약점검 - 서울캠퍼스

서울캠 총학생회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두고 공약을 점검했다. 단순 공약 이행을 평가보다는 ▲교양 절대평가 도입 ▲재정운용설명회 정기 개최 등 주요 공약을 위주로 점검했다. 엄규민(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 허예담(자율전공학 2023)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공약에 대한 자체 평가와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들었다. 다음호엔 국제캠 총학을 만나 공약을 점검한다.

‘필수교양 전면 절대평가’ 어려워 ‘역량중심평가 제도’로 계획 변경

총학은 학사 공약으로 필수교양 전면 절대평가 전환을 시작으로 하는 ‘교양 과목 평가 기준 단계적 완화’를 내걸었으나, 아직 이행하지 못했다. 서울캠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김진해 부학장은 “총학과 최근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학사 제도 변화는 양캠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캠과의 소통도 필수적인데, 국제캠 후마 이준태 학장은 “학사에 대해선 국제캠 총학과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약에 대해 총학은 현재 교육혁신추진단이 검토 중인 교양 과목 ‘역량중심평가 제도’ 도입으로 눈을 돌렸다. 엄 회장은 “총장님께 교양 평가에 대한 의견을 여쭙했을 때 ‘절대평가도 좋지만, 역량중심평가는 어떻겠냐’고 하셨다”며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량중심평가’는 학생마다 가진 역량을 중심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제도다. 가령 엄 회장은 “조별 과제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학생은 성적표에도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는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학사 제도인 만큼, 도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학점 처리 방식이 요구되지만 엄 회장은 “아직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총학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평가 기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의 교양 평가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약 70%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서술형 항목에선 대부분이 ‘절대평가 전환이 교양 과목의 취지와 설립 목적에 맞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엄 회장은 “절대평가도 학점 인플레이션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며 “지금은 역량중심평가 제도가 가장 알맞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김 부학장은 “600개 정도 되는 모든 교양 과목이 각자에게 적절한 역량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학생이 어떤 성취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할 도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역량중심평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정운용설명회 개최 예정 세척 개정 위한 TF도 구성 중

‘재정운용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공약은 기획조정처 예산팀과 함께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총학은 “남은 임기 동안에는 학생 대표자와 부총장 간의 정기회의체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총학이 이어가길 바라는 공약으로는 ‘교양 과목 평가 기준 단계적 완화’를 꼽았다. (사진=하시연 기자)

지난 9월 설명회가 열렸지만, ‘정기 개최’가 뜻하는 정확한 개최 빈도에는 의문이 따랐다. 엄 회장은 “원래는 분기당 1회로 생각했지만, 예산팀에서 분기마다 열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내년에 사용할 예산 설명을 위해 2학기가 끝나갈 시점에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16년 만에 등록금이 인상돼 약 100~11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됐다. 지난 재정운용설명회에서 김영진 예산팀장은 “내년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엄 회장은 “총학의 기조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를 학교에 전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한다면 학생 대상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할 예정”이라며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인상된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길 바라는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존폐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세척의 불명확성 문제에 허 부회장은 “11월 중으로 회칙 개정 TF를 발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운영위원회 불참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며 “애매했던 점들을 정례화해서 혼란을 없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엄 회장은 “불참 사유서 가결 기준은 예외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세척에 명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양 절대평가 도입 등 차기 총학이 공약 이어가길

중앙도서관은 3층을 완전히 휴게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했다. 엄 회장이 지난 1학기 소통간담회에서 ‘중앙도서관 공간 리모델링’을 발의했고, 이에 학술지원팀은 중앙

도서관 3개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다. 엄 회장은 “공약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가장 뿌듯하다”며 “휴게시설뿐만 아니라 세미나실도 생길 예정인데, 임기 내 정확히 어떤 변화가 있을진 모르지만 확답을 받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장 지연 등 논란이 있었던 대동제에 관해 엄 회장은 “미흡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봄 대동제는 5월 중순이었는데, 4월 초에 당선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다”며 “아쉽기도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가을 대동제에 더 잘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약 이행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엄 부회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공약이 없다”며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기반을 쌓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공약에 대해 “기반을 쌓는 공약들이 많아 가시적이지 않았지만, 학생과 학교를 연결하겠다”는 일념하에서 관철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아직 남은 임기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허 부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는 학생 대표자와 부총장 간의 정기회의체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총학이 이어가길 바라는 공약으로는 교양 과목 평가 기준 단계적 완화를 꼽으며 “변화를 위한 진전은 있었지만, 임기 내 시행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총학이 우리학교의 교육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목소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5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실습기간 : 2025.12.22.(월) ~ 2026.02.28.(토)
- 신청방법 :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실습기관 조회 후 신청
- 신청 및 선발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점 심사
1차	2025.10.13.(월)~ 2025.10.24.(금)	2025.10.30.(목)~ 2025.11.05.(수)	2025.11.07.(금)~ 2025.11.14.(금)	2025.12.15.(월) ~
2차	2025.11.03.(월)~ 2025.11.17.(월)	2025.11.21.(금)~ 2025.11.27.(목)	2025.12.01.(월)~ 2025.12.05.(금)	2025.12.16.(화)

- 학생 참여기준
 -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가능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졸업유예자 참여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가능
 -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가능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http://intern.khu.ac.kr>)
서울C: 02-961-2352 국제C: 031-201-392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